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이병용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56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송미정		
면담 일시	2026 년 6 월 15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7분 43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이병용은 구술자 조연희는 1956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69년 상경한 뒤, 여러 직장을 거치며 인천의 산업화와 도시 발전을 몸소 겪어온 인물이다. 1980년대 중반 학익동과 용현동 일대로 이주하여 한국파이프와 삼광유리, 한국협화화학 등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1994년 입사한 유니드(구 동양제철화학 계열)에서 출하부 기능직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다 2013년 무렵 은퇴했다. 그는 척박했던 초기 공장 지대의 환경과 산업재해의 아픔, 그리고 당시 지역의 핫플레이스였던 학익삼거리 회식 문화 등 치열했던 노동 현장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한다. 특히 유니드의 창업주 이회림 회장의 선견지명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 사원 아파트 제공과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언급하며 회사를 '가족을 살리고 선한 마음을 심어준 고마운 직장'으로 회고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 중인 그는 은퇴 후에도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청소년교육학, 문화교양학, 사회복지학, 보건환경학에 이어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한 방송통신대 봉사단과 노인회 주도의 '선배 시민' 활동 등을 통해 연평도 해양 정화, 섬 지역 요양원 봉사, 소외계층 지원 등 활발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주요 색인어	유니드(OCI 계열), 동양화학, 한국파이프, 삼광유리, 한국협화화학, 방송통신대학교, 이회림, 이수영, 강봉기, 충남 서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남동구 논현동, 학익삼거리, 연평도, 자월도, 소다회, 공장 폐기물, 자가발전, 사원 아파트(사택), 새인천 풀장(저수지), 산업재해(산재), 3교대 근무, 보수 정비 기간 회식 문화, 외상 거래, 1·4후퇴, 피란민 생활, 평생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 해양 정화 활동, 요양원 봉사, 선배 시민 운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출생과 인천 이주, 은퇴 후 삶	00:00:34 ~	
• 출생 및 상경: 1956년 충남 서산 출생, 1969년 상경 및 1976년 결혼 후 2남 1녀 양육.		

• 거주지 변천: 중구를 거쳐 1985년 무렵 용현동으로 이주하였으며, 은퇴 후 현재 남동구 논현1동에 거주 중. • 배움과 봉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청소년교육, 문화교양, 사회복지, 보건환경을 거쳐 현재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남동구 봉사단 및 방송대 학생회 활동 등 활발한 봉사 전개.	00:04:42	
2. 고향을 떠나 용현동 이주와 초기 동네 분위기	00:04:43 ~ 00:12:34	
• 이주 배경: 형편에 따라 흘러들어 가듯 1985년쯤 학익·용현동에 정착함. • 초기 생활상: 당시 주변에 아파트가 거의 없고 판잣집과 열악한 주택가가 밀집해 있었으며, 회사 출퇴근과 잔업에 매여 주변 문화를 즐길 겨를이 없었던 아쉬움 회고.		
3. 한국파이프 입사와 열악했던 현장, 산업재해의 기억	00:12:35 ~ 00:15:01	
• 근무 환경: 유니드 입사 전 한국파이프에서 4~5개월간 근무. 화학회사들의 미흡한 폐수 및 환경 관리로 인한 민원과 열악한 대기 오염 환경 목격. • 산재 경험: 크레인 작업 중 파이프에 다리가 눌리거나 프레스에 손이 잘리는 등의 사고가 비일비재했음에도 안전 개념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동료들의 일화 증언. 사모님과 함께 동반 입사했다가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사연.		
4. 삼광유리 일용직 근무와 유니드 입사 과정	00:15:02 ~ 00:22:29	
• 삼광유리 경력: 생활고로 인해 삼광유리에서 약 8~9개월간 일용직으로 자재 정리 등의 잡일 수행. • 유니드 입사 및 인맥: 동서지간인 친구의 스카우트와 한국협화, 울산 공장 등을 거쳐 1994년 유니드에 입사해 기능직(출하 업무)으로 정착. • 수증기 민원 해결: 대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공정 특성상 발생한 대규모 수증기를 두고 주민 오해가 생기자, 공장 개방 및 학생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오해를 불식시켰던 회사의 선제적 소통 노력 회고.		
5. 3교대 근무 환경과 보수 정비 기간의 회식 문화	00:22:30 ~ 00:27:55	
• 안전과 시설: 공장 정전 시 라인 굳음 현상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자가발전 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청결·안전 관리. • 직장 문화: 평소 3교대 근무로 얼굴 보기 힘들었던 동료들이 365일 가동을 멈추는 보수 정비 기간(주간 근무 전환 시기)에 모여 회식을 하며 친목을 다졌던 추억.		
6. 노조 활성화와 파격적인 복리후생·사원 아파트	00:27:56	

• 임금과 노조: 1987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80년대 말부터 임금이 크게 상승해 2000년대에는 인천 손꼽히는 우수 직장이 됨. 퇴사 시 연봉 8~9천만 원 수준 및 보너스 1200% 수령. • 복지 제대: 퇴직금 누진제 적용과 더불어 신입사원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연수주공, 만수주공 등에 사원 아파트(사택)를 제공했던 창업주의 선한 경영 철학 칭송.	~ 00:39:31	
7. 학익동 저수지 새인천 풀장의 기억과 에피소드		
• 여름 휴식처: 직원들에게 무료 이용 티켓을 제공하여 여름철 멀리 가지 않고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던 OCI 사유지 내 '새인천 풀장' 추억. • 저수지 매립 비화: 저수지 물을 뺄 때 난간 부주의로 추락했던 차량과 가출 가장의 유골이 발견되어 출퇴근길에 충격을 주었던 섬뜩했던 에피소드.	00:39:32 ~ 00:43:59	
8. 용현동·학익동의 급격한 도시 개발		
• 지역 변화: 오랫동안 발전이 더디고 판잣집이 많았던 용현동·학익동 일대가 2010년대 이후 장미 아파트 및 대우전자 부지 아파트 단지 등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10년 사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급성장한 변화상 회고.	00:44:00 ~ 00:46:56	
9. 동양화학 부산물 처리와 옥빛 매립지		
• 폐기물 처리: 수십 년간 쌓인 골칫거리였던 부산물을 고심 끝에 저수지 내부에 매립하고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기울였던 회사의 노력. • 경관: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보이던 몇십 년 쌓인 매립지의 신비로운 옥빛 풍경과 선견지명을 가진 이회림 회장의 경영 리더십 찬사.	00:46:57 ~ 00:50:52	
10. 이회림 회장과의 일화와 송도고등학교 졸업식		
• 특별한 기억: 아들의 송도고등학교 졸업식 축사에 방문한 이회림 회장의 자태와 아우라를 보고 마치 '하느님이나 신령님'을 뵌 것 같은 경외감을 느꼈던 일화. 개성 출신인 회장과 송도학원의 인연 회상.	00:50:53 ~ 00:53:40	
11. 골목길의 삶과 학익삼거리 회식 문화		
• 주거와 생활: 방 한 칸에 여러 식구가 살던 척박한 뒷동네 골목길 풍경과 고된 노동의 숨통을 트여주던 '학익삼거리' 고깃집·술집 거리 회식 문화. • 유니드의 신용: 당시 '유니드 다닌다'고 하면 신용이 좋아 동네 상인들이 외상을 흔쾌히 허락해 주던 회사의 사회적 위상.	00:53:41 ~ 00:59:11	

12. 변화된 도시를 바라보는 감회와 은퇴 후 삶		
• 소회: 눈부신 도시 발전에 감회를 느끼면서도 나이 듦에 허탈함이 교차함. 정년퇴직 후에도 하청 출하부에서 3~4년 더 근무한 덕분에 큰 미련 없이 2013년 말 최종 은퇴. • 기업에 대한 감사: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선한 마음을 심어준 유니드와 CEO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함.	00:59:12 ~ 01:08:52	
13.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과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		
• 소방통대 봉사단 활동: 학교 단체 소속으로 시내 화단 정리, 연탄 배달, 도시락 배달 외에도 연평도 해양 정화(그물 걷기), 자월도 요양원 정신지체 장애인 보살핌 및 소통 교육 봉사 전개. • 선배 시민 운동: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해 노년층이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올바른 노년을 보내는 법을 교육하는 '선배 시민' 단체를 인천에서 주도하며 시청·교육청 MOU 체결 등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 소개.	01:08:53 ~ 01:17:40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